

강진군, 맞춤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가소득 올린다

스마트팜 80평부터 300평 대상 주거 일자리 연결 귀농인구 견인 난방비 절감 다겹보온커튼 지원 임대스마트팜 1800명 상반기 구축



강진군이 농가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단기간에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한 비닐하우스 지원 확대를 농업인 소득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비가림으로 병해충 예방과 보온으로 계절의 한계 극복하고 농한기 농업인 소득 증대가 가능한 농법이지만, 초기 설치비 부담으로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농업인 실정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나선것.

군은 철골온실에 보온커튼과 양액재배 시설을 패키지 지원하는 800평형 스마트팜시설과 800평과 600평, 450평형 연동과 단동형 2중·1중 하우스, 200평 단동형 2중·1중 하우스 설치비 등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텃밭하우스 사업으로 50평, 30평 1중 하우스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비닐하우스와 딸기, 수국, 장미, 꽃작약, 고추 등 소득작목을 지원 중이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과 보광등, 양액재배시설,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 사업도 함께 추진해 농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밖에 군은 본인 소유 비닐하우스 지원뿐 아니라, 임대형스마트팜 1800평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4가구에 월 1만원에 임대할 계획이며 매년 귀농사관학교(귀농지원팀 061-430-3645)에 12명을 모집해서 10개월간 텃밭 경작, 농업기술교육, 농촌문화탐방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진으로의 귀농 귀촌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다.

강진군은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수리해서 입주자 선발을 통해 귀농인과 귀향인, 귀촌인에게 월 1만원 임대비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주거 지원팀 061-430-3072)를 제공하고 구직을 원할 경우 구인업체에 안내(일자리팀 061-430-3078)해주는 서비스를 펼치는 등 주거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은 “자연환경 좋고 인심 좋은 강진에서 주거와 직장을 구하고 농업 경영으로 안정적인 가계를 꾸리고자 하는 분들이 강진에 많이 오시기를 기대한다”며 “강진군은 귀농귀촌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일본뇌염 예방접종 12세 이하 대상자 무료

해남군이 7월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12세 이하 대상자의 예방접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남과 경남에서 채집된 모기의 50% 이상이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됐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고열, 발작, 마비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회복 후에도 30-50%는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돼 있으므로 1~12세 이하 어린이는 사백신 5회, 생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매개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퇴치를 위해 보건소 방역단을 9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민원 다발생지역에 대한 수시방역과 하천, 풀숲, 관광지, 공원 등에 집중 방역, 맨발 산책로 등에 친환경 해충퇴치기(포충기)를 추가로 설치해 모기퇴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국민 생명 재산 보호 을지연습 영암군, 19~22일

영암군이 오는 19~22일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 차원의 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연 1회 전국 단위 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 기간 영암군은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 전환 절차 △상황 조치 도상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민방공 대피 등 훈련으로 총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올해는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드론 테러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해 국가총력전 연습도 병행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신안군 관계자들이 군민들에게 얼음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31일부터 무인 생수함을 설치하고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등 폭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여름새우란 전시 오늘부터 25일까지

신안군은 13일부터 25일까지 자은면 새우란전시관(1004뮤지엄파크)에서 새우란 중 유일하게 한여름에 피어나는 여름새우란을 전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자생란의 보고로서 2013년부터 출란전시를 비롯해 2019년 신안돌립축제장 새우란 특별전, 천사대교 개통기념 새우란 특별전, 2021년과 2022년 신안 새우난초, 여름새우난초 전시, 2023년부터 전국 단위 새우란 축제와 대전을 추진했다.

올해 6월, 기존의 군화를 ‘신안새우난초’로 새롭게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며 자생식물의 보존과 미래가치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새우란 중 여름새우란 원종 100여 점을 비롯해 풍란, 흑산비비추 등 도서 자생식물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 멸종 위기 새우란 등 자생식물 홍보와 여름새우란 전시를 기념하고자 특별한 새우란 소재 기념품도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여름에 피어나는 꽃들이 많지 않으나 신안군에서는 한여름에도 청초한 아름다움을 내뿜는 새우란을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 온열질환 예방 무인 생수함 운영

신안군이 지난 7월31일부터 현재까지 폭염경보가 내린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얼음 생수를 가득 채운 무인 생수함을 설치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폭염 대응

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자율방재단과 공무원들은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온열질환의 경각심을 알리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폭염 취약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압해읍 시가지에 무인 생수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손쉽게 수분을 보충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낮 시간 야외 작업 자제, 야외 작업 시 꼭 2명 이상 실시, 현기증, 메스꺼움 증상 발생 시 즉시 야외 활동 등을 중지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서해해경청, 여수 해상서 쌍끌이 불법조업 선박 적발

헬기 경비정 투입 성과

불법 조업을 끝마치고 항구까지 다달아 ‘원전범죄’를 목전에 둔 어선이 해양경찰의 헬기 단속에 결국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 여수회전익항공대는 지난 9일, 여수시 돌산도 동방 5해리 앞 해상에서 조업을 한 뒤 돌산도 두문포 항에 입항하려던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어선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조업이 철저히 금지된 일명 ‘쌍끌이’ 조업을 한 혐의다.

여수항공대의 팬더 헬기는 이날 오전 9시경 여수공항을 이륙해 여수반도 일대에 대한 해상 순찰과 함께 불법 조업 예방 활동을 벌였다.

헬기가 돌산도 앞 바다에 이르렀을 때 연안 선망 등을 비롯해 70여척의 어선이 큰 무리를 이루고 조업하는 가운데 2척의 어선이 엇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러바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

헬기는 즉시 여수해양경찰서에 현장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기내에 장착된 채증 장비를 가동해 이 모습을 촬영하고 대공스피커를 활용해 이들 선단을 상대로 불법 조업을 하지 말라는 계도 방송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의 단속을 눈치 챈 불법 조업 어선들은 이미 채증이 끝나고 단속 경비함정이 출동해 오고 있는 것을 모른 채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서둘러 조업을 마친 후 항구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들 조업 어선이 항구로 들어

오는 길목에는 이미 여수서 P-22 경비정이 단속을 위한 검문검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10톤급 불법 조업 어선은 헬기가 채증한 영상을 제시하자 불법을 인정하며 공중과 해상을 통한 해경의 단속은 막을 내렸다.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 외의 조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척의 어선이 본선과 부속선을 이뤄 함께 조업을 할 경우 한 어선이 원형 형태를 그리며 그물을 감싸 어획물을 포획해야 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 어선들이 어획물이 많지 않더라도 어선이 그물을 매달고 나란히 항해하며 어획물을 포획하는 일명 ‘쌍끌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당부 무안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무안군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계열 KP.3가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은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무안군은 노인요양시설·영유아 보육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와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발생 대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자가격리와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예방수칙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중이 모이는 곳은 피하며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환경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소독 및 환기 등이다.

김성철 무안보건소장은 “휴가철과 실내 에어컨 사용 증가 등으로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